폭포수 속에는 설법의 메아리가…


①


②

1. 홍룡사 관음전 옆 폭포가 세속의 번뇌를 모두 씻어버릴 듯 흐르고 있다. 양산 8경 중 4경으로 물이 많을 때는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

2. 쉼터에서 보이는 대나무 숲이다. 여름철 대나무 소리는 청량하다 못해 시리다.

3. 일주문을 지나면 아담한 쉼터가 있다. 산행 중 흐른 땀을 식힐 수 있다.

4. 계곡속에 웅장함을 보여주는 홍룡사 대웅전의 모습.

경남 양산

홍룡사

"부채질하기도 나른하여 / 푸른 숲속에서 웃옷 벗고 / 두건도 벗어 바위에 걸쳐두니 / 드러난 이마를 솔바람이 씻어낸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하일산중(夏日山中)'이다. 시인은 더위를 잊기 위해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더위가 시작된 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문명의 발달로 간단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된 오늘날이지만 더위를 잊기 위해 자연을 찾는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자연을 찾아간다. 육체의 땀을 흘려서라도 기어이 푸른 숲을 찾는 것은 육체에 쌓인 더위와 아울러 마음에도 더위가 쌓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더위는 문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마음속의 더위를 끊어내야 한다면 눈앞에 죽비가 걸려있고, 길목마다 향 내음 가득한 산사로 가자.


③


④

폭포가 있는 홍룡사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 기슭.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관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지는 관음전 불단 위에선 맑은 향이 타오르고 문밖으로 날아간 향 연기 끝엔 한줄기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홍룡폭포가 있는 홍룡사다.

일주문을 지나 올라가는 길에 정자가 하나 있다. 1918년에 가선 대부 석은 이재영과 죽우 권순도가 함께 세운 가홍정(駕虹亭)이다. 원래의 건물은 아니고 1970년대에 복원한 건물이다. 당시 이재영은 한가한 자리를 찾아 자취를 끊고 이름을 숨기고자 했다. 그가 찾은 은거지가 지금의 가홍정이다. 이재영이 저술한 〈가홍정원병서〉에 시가 한 수 있다.

"천성산 그림 같고 골짜기는 푸른데 / 한 물결 무지개 폭포 신령한 구역을 깎아냈네 / 특별한 곳에 우레 울리니 맑은 낮에 비가 오고 / 위태한 바위에 꽃이 피니 저녁 구름이 가리네 / 몇 칸 엉성한 건물 누가 될 법하지만 / 반세상 찌든 근심 일깨워 줄 만하다 / 고마워라 동남지방 지나가는 과객들 / 올라오는 패옥 소리 모두가 난초향기로다."

정자에 앉아 지친 무릎 위로 시 한 수를 떠올리면, 시원한 바람이 구름을 몰고 지나간다. 가홍정 옆으로 아담한 쉼터가 있다. 벤치에 앉으면 작은 숲과 마주하게 된다. 나무는 매순간 자라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린 산새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생이 아쉬운 매미들은 나무 등에 업혀 쉴 새 없이 운다. 산다는 것은 쉴 틈이 없는 것이며, 쉴 새 없이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것이며, 하루하루를 아쉬워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리라. 한 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음이다.

숲을 지나면 대웅전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두 손을 모으면 이마가 지고 온 땀방울은 비로소 뜻을 가지게 되고, 힘겨웠던 두 다리는 비로소 읽힐 수 있는 문자로 남는다.

법당 옆으로 난 돌계단을 오르면 앞서 말한 관음전과 홍룡폭포가 나온다. 벼랑 끝에서 시원하게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쌓인 물 위에는 관음전이 있다. 원래 홍롱(虹瀧)폭포였던 홍룡폭포는 천룡(天龍)이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무지개 '홍'자를 쓰는 홍룡폭포는 물이 많을 때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고 한다.

홍룡사는 신라 문무왕(661~681) 때 원효(元曉 · 617~686) 스님이 세운 절이다. 원효 스님이 세운 많은 절이 있지만 홍룡사는 조금 특별한 불사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당나라에서 건너 온 천 명의 대중을 위해 지어진 절이다.

수많은 불교설화가 있는 천성산엔 한줄기 폭포 품은 사찰 홍룡사가 임란 당시 전소… 1910년 중창돼

양산 8경 중 4경 홍룡폭포 '매료' 무지개 타고 하늘 오른 天龍은 물이 많은 날엔 무지개를 만든다

원효 스님이 지금의 부산시 기장군 불광산에 자리한 척판암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공양 때 스님은 혜안으로 당나라의 태화사를 보게 된다. 절은 곧 산사태로 매몰될 지경이다. 마침 태화사는 천 명의 대중이 저녁 공양 중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간 대중 모두가 죽게 될 판이었다. 원효 스님은 공양 중이던 밥상의 그릇을 모두 내려놓고 상다리를 접어 밥상을 태화사를 향해 던진다. 태화사 허공에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신이한 소리가 도량에 퍼져나간다. 바람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나온 대중은 허공에 맴돌고 있는 밥상을 보게 된다. 대중이 밥상을 따라 절 밖으로 모두 나오자 산이 무너지고 태화사는 매몰된다. 절은 매몰됐지만 대중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원효 스님의 밥상이 땅에 내려앉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태화사 대중이 땅에 떨어진 밥상을 들어보니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擲板救衆 · 신라의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라를 향해 절을 한다. 원효 스님의 밥상이 다시 허공으로 솟아올라 신라로 향하니 태화사 대중이 그 밥상을 따라 신라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천 명의 대중은 원효 스님의 제자가 된다. 원효 스님은 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천성산에 89암자를 짓는다. 그 중 하나가 홍룡사이다. 당시 스님은 화엄벌이라 불리는 벌판에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제자들은 원효 스님의 설법을 듣기 전에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엔 낙수사(落水寺)라 했다. 천 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불한다. 천성산의 본래 이름은 원적산이었으나 이때 천 명의 제자들이 모두 득도하여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천성산(千聖山)으로 바뀌어 불리게 됐다.〈송고승전〉에서 전한다. 홍룡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절터만 있다가 1910년대에 법화 스님이 중창했다. 1970년대 말 우광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성산과 내원사, 원효암까지

홍룡폭포는 양산 8경 중의 4경이다. 그리고 홍룡폭포와 홍룡사를 품고 있는 천성산 역시 양산 팔경 중의 하나다. 홍룡사에 간다면 천성산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다. 천성산 산행은 홍룡사 입구를 출발해 삼거리, 쉼터바위, 화엄늪 삼거리, 원효암 삼거리, 천성산 제2봉, 원효암, 전망대, 쉼터바위 편백숲을 거쳐 다시 홍룡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약 10km의 산행으로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높이 922m의 천성산은 많은 계곡과 폭포 등 수려한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린다. 제2봉의 북서쪽 사면(하북면 용연리)에는 내원사(內院寺)가 있다. 희귀한 꽃과 식물 · 곤충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을에는 울창한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산 정상은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원사 계곡 역시 양산 8경 중의 하나다.

원효암에서 홍룡사쪽으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천성산 절경 중의 하나인 편백숲을 볼 수 있다. 홍룡사에 가면 천성산과 원효암, 내원사까지 함께 다녀올 수 있다.

홍룡사의 유물

홍룡폭포의 폭포수는 그 옛날 설법의 메아리를 추억이 깃들어 있는 화엄벌을 지나왔다. 아득한 사연으로 패인 골짜기의 단면을 흐르며 그 시절이 남긴 설법의 메아리를 실어 나른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물소리엔 아득한 문자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옛날의 흔적을 읽어주는 홍룡폭포는 진정한 유물이다. 폭포수에서 들려오는 오래 된 문자의 메아리를 듣고, 숲에 깃든 삶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제 등에 지고 온 땀방울이 비로소 뜻을 가지게 된다. 끊어낸 땀방울이 법당에 가득하다.

글 · 사진=박재완 여행작가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양산 IC로 나가 통도사 방면 35번 국도로 진행한다. 고려제강 양산공장 옆길로 우회전해서 대석리 마을 저수지를 지나면 홍룡사, 홍룡폭포로 가는 길이다.

1.5㎞ 정도 가면 공영 주차장이 있고, 800m 전방에도 주차장이 있다.

〈주변 가볼 만한 곳〉

▲배내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선리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가지산 고봉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맑은 계곡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이천동(梨川洞), 우리말로 배내골 이라한다.

▲내원사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6.25때 불탄 것을 1958년 수옥 스님이 중건했다. 절 아래 4km정도 뻗어있는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원효암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6-1번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원적산에 있는 암자다. 646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1905년 효은 스님이 중창했다. 내원사 부속 암자다. 원효 스님의 89암자 중 하나다.



박재완 작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현대불교신문사서 사진기자로 일했다. 2008년과 2010년 한국불교기자상(사진영상 보도부문)을 수상했다. 2012년 〈에세이스트〉에 수필로 등단했고, 2016년 5월 산문집 〈산사로 가는길〉을 출간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여행작가 및 전문사진 작가로 활동중이다.

첩첩산중 문수동자가 내 어깨를 다독이네





1. 반야사 앞 반야호수에서 참선하는 불자들의 모습. 호수에서 눈을 감고, 자연을 음미해보자

2. 문수전 앞 절경,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가슴 속 묵은 때를 벗겨낸다.

3. 소박한 반야사 대웅전 모습. 대웅전 앞 푸른 잔디밭은 포행에 적합하다.

4. 문수전의 작은 불상들, 동전을 이불삼아 편히 쉬고 있다.

영동 **백화산** 반야사

절은 혼자가야 한다. 오로지 나를 위한 여행의 로망을 품고 있는 당신이라면 꼭 작은 절을 찾아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절에서 그저 천천히 나를 위로하다보면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던 깊고 진한 여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한 힐링여행은 모두에게나 절실하다. 그러나 큰 맘 먹고 도시와 일터를 떠나면 여행이 주는 또 다른 긴장과 스트레스에 부딪히기 마련. 여행지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그저 지칠대로 지친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곳은 없을까. 그렇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진정한 힐링여행이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여행, 가능하다.

山에 안긴 작은 절, 운치 매력
이를 찾는 길은 절여행의 백미
고요·경건함에 머리 숙여진다

백화산 석천골에 감춰진 반야사
오솔길 걸으면 만나는 문수 설화
나에게 말을 거는 호젓한 시간





힐링여행은 생각보다 가까이

산자락 곳곳에 둥지를 튼 산사는 화사한 햇볕 한줌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힘이 있다. 절에 가면 차분해지고 내면을 반추하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다.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휴식처인 셈. 그렇게 본다면 수천 개의 절과 암자를 가진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라 할 수 있다.

풍덩풍덩 물이 흐르는 계곡이 반야사 초입을 알린다. 미완성을 위한 변주곡처럼 조금은 휘청거리면서 계곡을 흐르는 물길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여본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문득 놓쳤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매력. 녹음이 무성한 오솔길을 느리게 걸으면서 슬며시 마음을 열어본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곳들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더위를 피해 찾아간 반야사에는 작지만 특별한 선물이 있다.

반야사를, 나를 찾아가다

반야사는 혼자 가면 더욱 좋다. 혹 볼거리에 무게를 둔 여행일지라도 절에 들어섰을 때는 최대한 눈을 감고 자연을 음미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풍경 소리며, 바람 소리, 산새 우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꽃잎이 날리고 하늘 그림자 내려앉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아예 주저앉아 몇 시간을 보내도 좋다. 명찰, 대찰, 삼보 사찰보다는 작은 규모의 절이 더욱 운치 있게 마련. 그래서 작은 절을 찾는 길은 절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작은 절은 산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산속에 콕 안긴 절이 많기 때문. 산 속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그 고요함과 경건함에 머리가 숙여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절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구도의 여정인 셈이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말 붙이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작은 절에서는 자연스럽게 다가가기가 가능하다.

사색에 젖게 하는 굽이굽이 길

반야사의 아름다운 경치와 녹음이 동시에 내려앉는다. 구부러진 길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굽어서 가거나 그 길옆으로 흐르는 계곡처럼 고요하기도 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백화산 석천계곡 굽이 지점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는 여름철 장마가 져서 계곡의 물이 불어나면 없어졌다가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아름다운 다리로 모습을 드러낸다한다. 그런 모습이 마치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 문득 관음전의 부처를 만나고 싶어지게 만든다.

반야사에 도착하면 자연스레 약수를 찾게 된다. 약수터 한편에 "용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 한 모금 마시고 부디 성불하세요"라는 예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충청도 첩첩산중에 숨어 있는 절

소백산맥 줄기인 백화산은 충북과 경북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백화산에서 흘러내리는 큰 물줄기가 태극 문양으로 산허리를 감아 돌면서 연꽃 모양의 지형을 이루는데, 영동의 깊은 산이 감싼 연꽃의 중심에 반야사가 위치하고 있다. 반야사는 법주사의 말사이다.

반야사는 신라 성덕왕 19년인 720년에 의상대사의 십대제자 상원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며 일설에는 문무왕 재위 기간인 661년에서 681년 사이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가지 창건 설화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무염국사가 황간 심묘사에 계실 때에 사미승 순인을 이곳에 보내 못의 악룡을 몰아내고 못을 매워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에 고려 충숙왕 12년(1325년) 학조대사가 중수하였고, 조선 세종대왕 때에는 신미대사의 주청으로 절을 크게 중건 하였으니 문수보살과 세종대왕의 설화도 이때의 일이다. 한국전쟁 때 불탔던 것을 근래 2~30년 전부터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 반야사에서 수행했던 유명한 스님으로는 고려 충숙왕 때 무이국사가 이곳에서 출가를 했고 조선 초기 큰 도인이었던 벽계정심선사도 이곳에 주석했으며 또한 이곳 반야사를 배경으로 한 사명대사의 시도 전해 내려온다.

반야사는 도량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문수전과 관음전이 떨어져 있어 전각까지 가는 길이 산책로이자 등산로가 된다. 산마루에 있는 문수전까지 가는 길은 사계절 내내 아름기로 유명하다. 절벽 아래에 흐르는 강이 제법 넓고 커다란 바위가 군데군데 평평하게 펼쳐져있다. 그리고 문수전은 절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오솔길 따라 문수동자 만나다

반야사를 찾았다면 문수전은 꼭 봐야 한다. 문수전은 수십 미터 높이의 아찔한 절벽 위에 지어진 가람인데 정묵당 뒤로 개천(석천)을 따라 5분쯤 걸어가면 문수전으로 가는 계단이 나온다. 방생 장소로 유명한 수월대를 지나고, 넓은 반석에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돌계단이 이어지는 벼랑길을 올라야 한다.

산꼭대기 절벽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문수전이다. 석천계곡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정사와 같이 세조가 대웅전에 참배를 하자 문수동자가 나타나 세조를 절 뒤쪽에 있는 망경대 영천으로 인도한 후 목욕을 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세조가 목욕을 하자 문수동자는 왕의 불심이 지극하기에 부처의 자비가 따를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자를 타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반야사 극락전에서 오솔길을 따라 약 300m 정도 걸어가면 평평한 바위가 나오고 그 바위 옆 우측으로 돌계단을 따라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다. 문수전에서는 스님의 낭랑한 염불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고 목탁 소리가 유독 청아하게 들린다. 계곡이 둘러싼 곳에 둥지를 틀어 소리가 모아져 목탁 소리가 더욱 청명해지는 것이다. 문수전에서 학이 울면 학소대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바위와 어우러진 문수전은 쳐지고 지친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를 모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반야' 라는 글이 포함하고 있는 상징성이 문수보살이다. 또한 백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장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명 덕에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이 머물고 있어 기도가 영험하다고 한다.

반야사를 둘러싼 녹음을 곁에 두고 오솔길을 걸으면 무거웠던 마음에 들어찬 고통이 서서히 씻겨 내려간다. 누군가의 위안을 바라기보다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게 말을 걸게 하는 호젓한 시간이다. 반야사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위로해본다. **글·사진=유철상 여행작가**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황간IC를 나와 마산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다. 월류교를 지나 신촌리감서리에서 우회전 하면 반야사 이정표가 나온다.

주소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다. 043)742-7722

〈주변 가볼만한 곳〉

▲월류봉 첩첩산중인 영동은 그 첩첩마다 아름다운 경치들을 꼭꼭 숨겨두고 있다. 반야사에서 자동차로 십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월류봉도 비경 중 하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맑은 물줄기 가에 깎아 세운 듯 세모난 봉우리가 우뚝 서 있다.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 라는 뜻의 월류봉(月留峯)이란 이름처럼 달밤의 정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난계국악박물관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추앙받는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 영동이다. 박연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국악의 맥을 잇기 위해 230평 규모의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제작촌이 자리하고 있다. 난계실에서는 박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국악연표, 연주모습, 국악기 제작과정 등 국악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관이 있다.



유철상 작가는
〈광주매일〉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됐고, 동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다수의 잡지와 신문사서 여행전문기자로 일했고, KBS, EBS, YTN, BBS, 불교TV, MBC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여행 패널로 참여해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위한 사찰여행 55〉 〈천국보다 멋진 럭셔리여행〉 〈괌 사이판 셀프트래블〉 〈주말엔 서울여행〉 〈우리나라 가족여행 바이블 100〉 등이 있다.